



이디야커피, '뉴 아메리카노' 선보여

이디야커피가 기존 아메리카노 메뉴를 '뉴 아메리카노'로 변경했다. 이디야 커피연구소에서 오랜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기존과 같은 가격에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기본 사이즈가 라지도 커지고,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했다.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기획했다.

'CES 2023', 그룹 총수·CEO들도 출동

“탄소 감축·스마트가전…K-미래기술 총집합”

삼성·SK·LG·HD현대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1월 5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에 참가해 최신 제품과 미래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또한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CEO들도 대거 출동해 현장을 직접 행진한다.

SK, '탄소감축' 기술 선보일 예정 미국 글로벌 파트너사도 함께 참가 삼성 '비스포크', 럭셔리 소재 적용 LG, 미니멀 디자인 5종 제품 공개

●최태원 회장, CES 첫 참가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CES 2023에 그룹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그룹 핵심 전략인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실현 의지를 전 세계에 직접 알린다.

SK그룹은 8개 계열사와 미국 소재 10개 파트너들이 참가해 '행동(Together in Action, 함께 더 멀리 탄소 없는 미래로 나아가다)'을 주제로 한 전시관을 공동 운영하며, '탄소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관계사 제품과 기술들을 총망라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2022 CES에 참여했던 SK㈜, SK이노베이션, SK E&S,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등 6개 사 외에 SKC, SK바이오팜 등 2개 사가 추가로 참여한다. 또한, 이들의 글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 참가해 미래 기술을 선보인다. SK그룹의 전시관 중 'SK, Around Every Corner' 구역 가상 이미지(위)와 HD현대 전시관 조감도. 사진제공 | SK그룹·HD현대

로벌 파트너 사인 테라파워, 플러그 파워, 플라스틱 에너지 등도 참가한다.

SK 전시관은 크게 두 개 구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구역에서는 인류가 기후 변화의 위기에 맞서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직면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를 미디어 아트 기술 등을 활용해 실감나게 보여줄 예정이다. 두 번째 구역에서는 SK 계열사와 파트너 사들이 이미 상용화했거나 조만간 상용화할 탄소 감축 에너지 기술과 솔루션 등으로 구현할 수 있는 미래 도시 모습을 보여준다.



정기선 사장

올해 'CES 2022'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던 정기선 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 사장은 'CES 2023'에도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해양 비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바다에 대한 관점과 활용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이룰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시하고, HD현대만의 미래 해양 전략과 성장 동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HD현대의 전시관은 ▲오

션 모빌리티 ▲오션 와이즈▲오션 라이프▲오션 에너지 등 크게 4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삼성 '럭셔리', LG '미니멀' 가전 선보여 삼성전자는 한중희 DX부문 부회장이 'CES 2023'에 참가한다. 한 부회장은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를 주제로 한층 강화된 보안과 사물의 초연결 생태계에서 누리는 새롭고 확장된 스마트싱스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고급스러운 소재를 적용해 디자인과 내구성을 강화한 '비스포크 인피니트' 주방가전 패키지 신규 라인을 CES를 통해 선보인 뒤, 내년엔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조주완 대표가 현장에서 활약하며 새로운 '미니멀 디자인 가전'을 공개한다. 오브제컬렉션이 주도하는 공간가전 트렌드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고객에게 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미니멀 디자인을 적용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 5종의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미니멀 디자인 가전은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를 추구한다. 기본 색상은 무채색 계열이며 물리적 버튼이나 장식 요소, 손잡이 등을 최소화하여 디자인을 단순화했다. 사용자 경험(UX) 및 환경(UI) 또한 직관적이고 단순화해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백승훈 SPC행복한재단 사무국장(왼쪽)과 박수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3지역본부장. 사진제공 | SPC

SPC, 겨울방학 맞아 '해피포인트' 지원 사업

SPC가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해피포인트를 지원했다. 해피포인트 지원 사업은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 시즌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파파바게트, 배스킨라빈스, 던킨, 파스쿠찌, 빗은 등 전국 7000여 개 SPC 계열 매장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해피포인트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경기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 320명과 아동복지시설 60곳에 5000만 원 상당의 해피포인트 적립카드를 전달했다. 회사 측은 “해피포인트로 결식 우려 아동들이 식사 걱정 없는 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아주모터리움, 볼보 'XC40' 경품 이벤트

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아주모터리움이 전시장 시승 고객을 대상으로 'XC40(사진)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아주모터리움은 최근 오픈한 볼보 브랜드 최초의 DTS(Downtown Store) 확장 콘셉트가 적용된 '고양 전시장'을 포함해 목동, 일산, 안양, 부천에 총 5개 전시장과 문래, 일산, 안양, 부천에 4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다. 고양 전시장 오픈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경품 이벤트는 아주모터리움 5개 전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벤트 참가는 2023년 9월 30일까지 시승 및 전산 등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벤트 경품은 볼보 XC40 1대 및 바우처 앤 월킨스 블루투스 스피커, 애플 워치,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등이다.

삼성전자, 내년 1월부터 역대급 '세일 페스타' 개최

90만 원대 한정 판매 모델 늘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삼성전자 세일 페스타(사진)'를 연다. 이번 행사는 가전·모바일 등 대상 모델과 구매 혜택을 확대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90만 원

대 특별가 한정 판매 모델을 늘렸다. QLED TV(55인치),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24Kg)·건조기(20Kg), 양문형 냉장고 등을 90만 원대에 판매한다.

이 밖에도 비스포크 가전과 TV, 스마트 모니터, 모바일 기기, 오디오 기기 등 총 150여 개 모델을 할인가로 판매한다.



결혼과 이사를 앞둔 고객 등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도 기존 최대 33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대폭 늘렸다.

'비스포크 웨딩클럽'의 10개사, '비스포크 뉴클럽'의 11개사와의 제휴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삼성전자 제품 구매와 함께 각 클럽에서 3개 회사 이상 이용 시 추가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행사 기간 추첨을 통해 구매 금액의 최대 3배를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로 제공한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교통사고 후유증, 밤심하다 서서히 발생 양한방 협진 병원서 개인 맞춤 치료 중요

교통사고를 겪은 뒤 나타나는 여러 통증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서서히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지연성 근육통 형태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교통사고로 근육에 갑자기 큰 충격이 가해지면 근섬유 미세 파열 증세가 두드러지며 지연성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목, 허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교통사고로 반동이 일어나 경추가 뒤로 꺾이면 서 임상적 손상 장애인 편타 손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어혈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으로 꼽힌다. 충격으로 내부 혈액순환 불균형이 나타나는 데 이로 인해 어혈, 즉 나쁜 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상 경로를 이탈해 생긴 나쁜 피가 기혈 순환을 방해하여 통증 및 어지럼증, 불면증, 불안 등을 일으키는 것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발병 기전이 복잡한 만큼 양한방 협진이 가능한 한방병원에 내원해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정밀 검사 후 한침, 부항, 추나요법, 한약치료, 사독약침치료 등 환자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독약침은 사고로 인한 증상만이 아니라 기저질환이나 평소 잘못된 기온도 잡아내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인 어혈 약침 외에 사독약침을 더하는 치료법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동탄 한독한방병원 송상열 원장

서울관광재단,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 제휴시설 모집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선제적 대비”

서울관광재단이 한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에 맞춰 선제적으로 해외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서울관광재단은 내년 1월부터 외국인 전용 서울 관광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사진)'의 신규 제휴시설을 상시 모집한다.



등 5곳이 선정됐다. 상시 모집은 기존 1년에 1회 실시한 선정 과정에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사업체와 서울관광재단 사이의 업무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도입했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입으로 판매량이 증가해 코로나 이전 실적을 빠르게 회복 중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현대자동차, 납품대금 3531억원 연말 조기 지급

협력사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도움

현대차는 협력사의 납품대금 3531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올해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충격'으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상황 속에서 협력사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현재의 3고 복합 위기로 인한 충격에 더 취약하다는 점도 고려해 지급이 결정됐다.

이번 현대차의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여섯 차례 연속 인상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로 납품대금을 조기 집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으

로, 부품 협력사들은 현대차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4일 일찍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 3차 협력사들도 연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조기 지급 대금이 2, 3차 협력사에도 골고루 돌아가 3고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사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활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면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